월요광장

미래 도시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봄기운이 무르익는 5월은 1년 중 야외 활동에 가장 좋은 시기여서 '계절의 여왕'으로 불린다. 하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필자와 같은 사람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은 시기이다. 바람에 날리는 뿌연 꽃가루에 저절로 몸이 움츠러드니 마스크를 한 번 더 챙긴다. 꽃가루 농도가 새벽부터 오전까지 높다 하니 이 시간에는 야외 운동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에 나갈 때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꽃가루가 피부나 눈에 닿는 것을 차단한다.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어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이 시기를 지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알레르기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좋아도 누군가에게는 힘든 것은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적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사회적 상황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안겼을 것이다. 도시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정책들이 생겨날 것이고 과거 정책들은 없어지거나 변화를 거쳐야 한다. 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변화는 좋게 보면 개선된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부정적으로는 과거를 덮고 새판을 짜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필자는 개인적으로 도시정책 분야에서 도시 재생과 주거 복지, 미래 도시 정책이 변함없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 중심에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세계의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를 구현을 외치고 있다. 스마트 시티는 유럽의 경우 도시 재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오래된 도시들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외형이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외형은 바꾸지 않으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시 재생 뿐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에 미래 모빌리티 교통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선순환 구조 형성, 주민 안전을 위한 도시 구성 요소들의 통합 관리 운영 등 모든 것들이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스마트 시티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일상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미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비대면 등 미래의 기술과 문화가 적어도 10년 이상 앞당겨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래의 도시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 도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전자 데이터 수집 센서를 사용하여 자산과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IT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주거·환경 등과 같은 문제와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삶을 누리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스마트 시티는 앞으로 각 나라, 각 도시의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진화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를 개발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이 맞물려 더욱 발전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면 그에 따른 기술들이 같이 진보하게 된다는 얘기다. 스마트 시티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바로 알 수 있어 이동 시간이 줄게 되고, 모든 사물이 데이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격 근무는 물론 각 거주자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게 된다. 또한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들게 되어 환경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완벽한 미래지향적 사업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종과 부산에 이러한 스마트 시티가 국가 시범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필의 향기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잠 못 들고 나온 밤이다. 늦은 밤인지라 사위가 고요하다. 밤이라지만 자세히 보면 어둠도 강물처럼 짙고 옅은 깊이가 있다. 옅은 곳을 골라 걸으며 갈 길을 간다. 멀리 달빛과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다. 화사한 벚꽃이나 살구꽃도 때론 빛이 되곤 한다.

야심한 시간에 갈 곳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구름에 달 가듯 마실 길에 나선다. 이웃집 창문에 불이 켜졌다. 누군가 귀가를 기다리는 그 등불이 내 야간 산책의 길라잡이가 된다.

밤에 홀로 걷는다. 고독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쓸쓸하고 애잔할 여생을 생각하면서 징검다리를 걷듯 조심조심 나아간다. 힘이 빠지고 꿈도 없어지는 노년은 초저녁같이 희붐한 시기이다. 절망을 이기려고 애써 절망 속으로 발을 내디딘다.

고샅의 포근한 공기가 나를 감싸준다. 은은한 달빛에 반사된 야경은 화려하지 않아서 좋다. 소쩍새 울음소리는 구성지다 못해 애를 태우고, 배꽃 향기는 그윽하다. 닫혔던 귀와 코가 열리는 시간이다.

할아버지가 떠나고 또 아버지가 떠난 지금, 머지않아 나도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순명의 길이다. 젊음이 빠져나간 몸을 허무와 공허가 밤공기처럼 감싼다. 착잡한 마음이다. 열심히 산들, 하루를 더 산들 죽음 뒤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단한 바위나 쇠붙이에 이름을 새긴들 정작 실체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순환의 한 점에 있었다는 것, 지금 이렇게 생을 사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를 위안한다.

그때 내 앞에서 누군가 깜짝 놀란다. 고라니다. 먹이를 찾아 골목까지 내려와 바지런히 쏘다닌다. 놀란 이는 나련마는 화들짝 놀라 달아난다. 어쩜 우린 미물이라고 하지만 녀석 또한 이 야심한 시간에 자신의 생에 열중하지 않는가.

고샅을 걷는다. 간혹 이야기 소리가 나는 집도 있지만, 텔레비전 소리만 나는 집은 노인 혼자 사는 집이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루를 건너는 중이다.

깜깜한 밤이다. 바둑을 복기하듯 하루를 되돌아본다. 어둠은 시각과 입에 의존했던 나를 더 낮고 겸손하고, 성숙하게 살아가라고 나를 깨운다. 무엇보다 밤에는 감성이 활짝 열린다. 낮이 이성의 시간이고 수학적 시간이라면 밤은 순전히 서정의 시간이 된다. 눈과 귀를 앞세워 머리로 살았던 혼돈의 낮과 달리 밤은 시나브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사는 찰나가 된다. 구름에 숨었다 새롭게 나타나는 달처럼, 나를 정화해 본다.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일세 / 일지 춘심을 자규야 알랴마는 / 다정도 병인 양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깊어가는 어둠만큼 회한과 상념도 깊어간다. 하얀 달빛처럼 수북하게 쌓인 세월, 그 속에 배꽃처럼 활짝 핀 청춘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 그리운 시절이다. 지금 어디서 잘살고 있을지, 혹여 그도 나를 생각하지는 않는지. 아슴아슴 그녀 모습이 떠오른다. 흙마루에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친 어머니도 생각나고, 회사일로 정신이 없을 아들 녀석도 떠오른다. 그러면서 나는 또 내일 어디에 있을지, 이런저런 상념을 하면서 밤길을 걷는다.

'인생 백 년을 사는 사람은 없건마는 부질없이 천년의 계획을 세운다'는 말을 모르는 바 아니나 감성 없이는 잠 못 들고 밤거리를 배회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진중한 삶이다.

밤길을 걷는다. 삶은 중량도 가치도 달기 어렵구나. 달은 많이 이울었고, 배꽃도 하얗다. 고샅을 돌고 또 걷는다. 마음도 가벼워졌고 제법 힘도 난다.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기 고

그림이 전하는 치유의 힘

신미지
주부·아마추어 작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소중한 표현인데도 많이 아끼고 서툰,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표현이 있다면 '사랑한다'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다'이지 않을까 싶다.

지난 4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곡 도서관 1층 갤러리연 소박한 전시회에서 그 소중한 말들을 많이 들었다. 선뜻 말하기 어려운 그 표현들을 오시는 관람객들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아팠던 내가 그림을 그리며 받았던 치유와 힐링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행복했다. 무엇보다 나처럼 오래 아팠던 사람, 가족을 오랜 시간 병간호하며 지쳤던 이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됐다는 점이 뿌듯했다.

'아픔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그림들은 내가 12년간 아픔과 함께 살아가며 그린 작품들이다. 누구에게도 지도를 받은 적 없이 그냥 미술 교사였던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물감과 붓으로 시작한 그림은 나에게는 살아가는 힘이었다. 그림이 완성될 때면 아픈 나를 늘 위로하고 챙겨 주었던 천사 같은 이웃들에게 그림을 선물하기도 했는데 변변치 않은 그림인데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해 했고 일곡갤러리에서 전시회까지 개최하게 됐다.

관람객들과 함께한 모든 일들이 마치 어느 봄날의 꿈 같았다. 휠체어를 타고 오신 어머님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 행복해서 그러는데 한 바퀴 더 돌면 안 되냐고 물으셨다.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고 그토록 내가 바라 왔었던 순간이었기에 오래, 아주 오래 기억될 것이다.

또 모사 작품 중 고흐의 붓꽃 그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참을 서 계시던 어머님은 12년째 남편 병간호를 하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 왔는데 그림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고 또 힐링하게 되었다고 우셨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몸이 불편한 26세 청년 시인 역시 내게 진한 감동을 전해 주었다. 불편한 몸으로 두 번이나 방문했는데 그가 활짝 미소 지으면서 내게 전한 말은 '행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였다.

'집 가까이에 도서관과 함께 갤러리가 있어 참 좋아요' '화사하면서 은은한 느낌이 기분을 좋게 해 줘요'라는 초등학생들, 잠시 머리 식히러 왔다는 고3 남학생들, 아장아장 단체 관람 온 어린이집 꼬마 천사들까지 그림을 본 이들이 남겨 놓은 짧은 글도 좋았다.

내 작품은 대부분 꽃과 나무 등 자연을 그린 작품인데, 그 순간 난 예술로 승화된 자연의 힘을 또 다시 느끼게 되었고 나 역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아름다운 자연에 더욱 진한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됐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아주 작은 들꽃 하나에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아껴 준다면 결국 그 마음이 예술로 이어진다는 것도 느꼈다.

서로가 아름다움을 나눔으로 이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아닐런지. 아쉬움이 있다면 많은 이웃들이 아직도 갤러리 하면 많은 부담감과 함께 어색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전시장을 찾아서 자신만의 잔잔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 나처럼 서툰 솜씨의 아마추어지만 직접 전시회의 주인공이 되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내가 너무나 힘겨울 때면 꼭 내 마음에 노크를 해 주시는 천사님들과 먼 길 마다 않고 귀한 걸음 해 주신 모든 분들과 정다운 이웃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아울러 보석보다 더 빛나는 아름다운 편지를 남겨 주심에 감사드린다. 삶의 순간순간에 잔잔한 감동이자 큰 힘이 될 것이다.

말하기도 걷기도, 여러 움직임들이 힘겹지만 그래도 밝고 씩씩한 26세 청년 시인의 글로 마무리하고 싶다. 그가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봄의 전령사 복수초 그림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선물했더니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내게 선물했다.

"선한 눈빛을 가진 그대의 눈빛에 내 마음 흔들리고 물 흐르는 듯한 맑고 편안한 이 분위기에 난 행복하였네. 감사해요.♡"

社 說

문예회관 초유의 전면 휴관 부른 불통 행정

리모델링 공사 중인 광주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 대극장의 휴관 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로 또다시 연장됐다. 이달부터는 소극장까지 동시에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로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지역 문화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문예회관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대극장과 소극장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2023년 3월 31일까지 휴관한다고 밝혔다. 객석 및 무대 장비 교체에 따른 대극장의 휴관 기간 연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예회관은 지난 2021년 초 설계용역을 끝마칠 당시 그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지난해 8월에는 완공 시기 착오를 이유로 올해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오는 4일부터는 소극장까지 공사에 들어가면서 문예회관 공연장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됐다.

이에 코로나 사태로 2년 이상 공연을 하지 못한 채 9월 재개관에 맞춰 작품을 준비해 왔던 공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연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1722석 규모의 대극장과 504석인 소극장의 공백은 대관 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예회관 측은 휴관 연장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자재난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혼선은 문예회관과 공사를 담당하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공사 과정에서 상호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재개관 일정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양측은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기간을 단축하고 소극장 공사 시기를 조정해 전면 휴관만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긴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예술단체나 공연 기획사들이 재개관에 맞춰 효율적으로 공연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조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도 충실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교도소 과밀 수용·인권 침해 개선 서둘러야

광주·전남 지역 일부 교도소들은 그동안 냉난방 시설 완비를 비롯해 재소자 인권을 우선으로 한 교도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곤 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지역 내 한 교도소에서 발생한 사안들을 인권 침해로 판단해 법무부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여기에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문제까지 포함돼 있어 아직도 재소자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은 교도소 측이 정원 다섯 명 정도인 12.91㎡(네 평)의 면적에 아홉 명이나 과밀 수용했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 지급을 요구하자 남성 의무과장이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간호사에게 생리양을 확인하라고 모욕감을 줬다며 진정을 냈다.

아홉 명이 수감된 교도소 방의 면적이 12.91㎡라면 1인당 평균 면적은 1.43㎡, 즉 가로 1.43m 세로 1.43m인 셈이다. 2020년 기준 한국 여성의 평균 신장이 161㎝, 평균 체중 57㎏인 점을 감안한다면, 두 줄로 누워 잠을 잘 경우 아무리 간격을 벌려도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넓이는 70㎝ 정도에 불과하다. 고개만 돌려도 옆 사람의 얼굴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

과밀 수용은 비단 이 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위는 현재 전국 교도소의 정원 대비 현원이 평균 136%, 최대 273%에 달한다며 법무부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여성 재소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의무과장에게 성 인지 감수성 관련 인권 교육을 받게 하라고 권고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고, 인권이 침해받으면 교화는 정당성을 잃고 효과도 떨어지게 된다. 교정 당국은 더 이상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외수

지난달 25일 76세로 별세한 작가 이외수는 '바보 같은 천재' '광인 같은 기인'으로 불렸다. 1946년 경남 함양군에서 태어나 춘천교대를 자퇴한 그는 197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1975년 '세대'지 신인 문학상을 받으며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올해는 등단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지만 안타깝게 고인은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겨 두고 독자들과 이별을 고했다.

이외수가 태어난 곳은 함양이지만 일반인에게는 '강원도 출신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본가가 있는 인제군에서 성장하고 춘천에서 30년 가까이 창작 생활을 한 때문이다. 2006년 이후부터 투병 이전까지는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감성마을에서 거주하며 글쓰기를 해 왔다.

생전의 작가는 지상파와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했다. SNS에서 17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린 것은 그만큼 세상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러 정치적 견해가 담긴 메시지 탓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위트와 풍자로 일상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외수의 작품은 미려한 문체와 섬세한 감성, 기발한 상상력의 조화라는 평가를 받는다. 첫 장편소설 '꿈꾸는 식물'을 비롯해 '들개' '벽오금학도' '황금비늘' 등은 그러한 세계가 반영된 작품이다. 인간 존재의 본질과 구원에 대한 심미적인 탐색은 작가가 평생을 추구한 화두였다.

고인이 남긴 신조어 가운데 '존버'라는 말이 있다. '존재하기에 버틴다'는 의미를 지닌 말인데, 이외수는 스스로를 '존버 정신'의 창시자라 칭했다. 그러한 신조어를 비롯해 작가가 남긴 수많은 어록은 갈등과 전망 부재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잖은 위안을 준다. "인생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희망도 절망도 필요하다, 다만 포기란 놈의 유혹만 떨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면 그만이지. 그대를 응원한다. 힘을 내라."('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 중에서·해냄)

/ 박성천 문화부 부국장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